

調査結果

경제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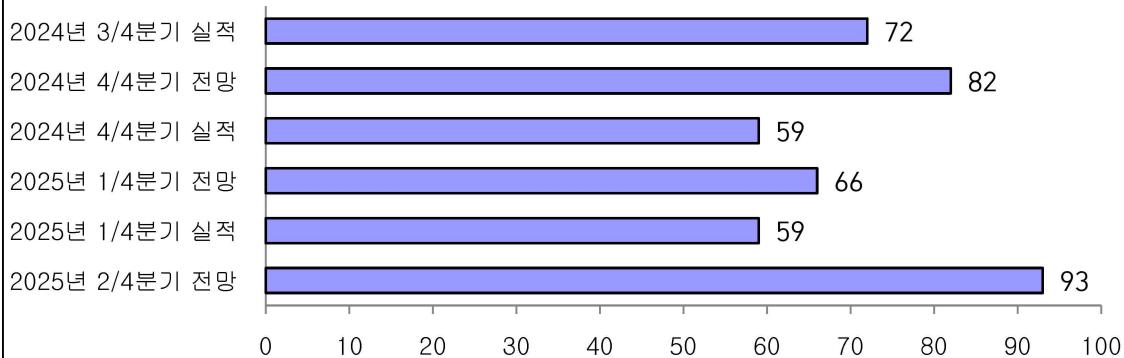
054)632-8830

2025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정병대)는 최근 관내 30여 개 제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2025년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27’ 포인트 증가한 ‘93’으로 집계됐다. 실적 추정치는 전 분기와 동일한 집계 수치로 나타났다. 기업경기 전망 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부문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24년 3/4분기 실적	2024년 4/4분기 전망	2024년 4/4분기 실적	2025년 1/4분기 전망	2025년 1/4분기 실적	2025년 2/4분기 전망
체감경기	67	83	60	47	57	110
매출액	67	86	53	80	57	100
영업이익	70	83	53	70	47	97
설비투자	77	80	77	67	63	70
자금사정	80	81	54	67	70	87

기업들 경기전망 15분기째 ‘부진’... 10곳 중 4곳 ‘작년보다 매출목표 낮춰’

관세전쟁과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기업들의 올해 2분기 체감경기 지수가 1분기 대비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지수가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2025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 ‘110’, 매출액 ‘100’, 영업이익 ‘97’, 설비투자 ‘70’, 자금사정 ‘87’로 나타났다.

제조기업 39%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대비 하향 조정”... 대내외 리스크에 실적 기대감 저조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이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그중 목표로 설정한 매출수준이 전년대비 10% 이상 크게 하락한 기업도 9.6%로 적지 않았다. <지난해 수준 34.7%, 소폭 상향 22.6%, 크게 상향 3.0%>

또한,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경기 부진’(59.5%)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40.2%)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트럼프發 관세정책’(34.8%)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21.8%)을 지목한 기업들도 적지 않았으며, ‘고환율기조 지속’(20.5%), ‘자금조달 및 유동성문제’(12.7%)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기타 2.6%, 복수응답>

대한상의는 “미국의 관세압박에 대응해 기업들은 협력가능성이 높은 조선, AI,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투자와 성과 등을 협상카드로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미국 연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의원들과도 외교채널을 구축해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제조업기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보호무역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기간 : 2025. 02. 21 ~ 03. 07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전체응답업체수]×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